전세계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정 일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동신문》에
발표한 담화 1995년 12월 25일

우리 나라에서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70년의 력사가 흘렀습니다. 이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인민의 자유와 조국의 자주독립,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여러 세대가 고귀한 피와 땀을 바쳤으며 수많은 혁명가들이 위훈을 세우고 빛나는 업적을 쌓았습니다.

우리 인민은 앞선 세대 혁명가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며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선배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충실히 계승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 숭고한 도덕의리이며 우리 혁명이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있는 근본요인의 하나입니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의 력사는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그들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갈 때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며 혁명선배들을 저버리고 그들의 업적을 부정할 때에는 혁명이 중도반단되고 좌절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습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당과 국가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하여 혁명선배들을 모독하고 그들의 업적을 말살하는 배신행위가 감행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주의의 영상이 흐려졌으며 끝내는 사회주의제도자체가 허물어지게 되였습니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혁명선렬들이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를 대를 이어 높이 들고 나아갈 때에만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이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1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도덕의리입니다.

사회주의위업은 세대에 세대를 이어 선배들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후대들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하며 완성되게 됩니다. 혁명선배에 대한 태도는 혁명에 대한 태도문제이며 그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혁명선배를 존대한다는것은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혁명가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계승발전시켜 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혁명선배들의 숭고한 혁명사상과 그들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업적은 혁명의 전취물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고귀한 밑천으로 됩니다.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는 모든 세대들이 혁명선배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전진하며 빛나게 완성될수 있습니다. 혁명선배들의 투쟁과 업적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하며 부정하는것은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며 혁명을 배반하는것으로 됩니다.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그들의 사상과 업적을 모독하는것은 혁명을 모독하는것이며 혁명의 원쑤들앞에 아부굴종하는것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선렬들이 개척하고 전진시켜온 사회주의위업을 변함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하며 혁명선배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사상과 업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혁명선배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에 대한 태도문제인 동시에 혁명가들의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덕의리는 혁명가의 품격을 규정하는 기본징표의 하나입니다. 혁명가는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할뿐아니라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닌 참다운 인간적풍모의 소유자로 되여야 합니다. 량심과 의리는 인간의 고유한 미덕이며 사람들을 자각적이고 아름다운 행동에로 추동하는 정신적힘의 원천입니다. 선진적인 사상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량심이 없고 도덕의리를 지킬줄 모르는 사람은 고상한 인간적풍모를 갖출수 없으며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습니다.

낡은 사회에서도 량심있는 사람들은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사람의 인격적가치를 평가하였으며 도덕의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사람답지 못한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는 참다운 도덕이 발전할수 없고 지배할수 없습니다. 착취사회의 기초로 되고있는 개인주의는 진실한 도덕의리와 량립될수 없으며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사이에는 도덕의리적관계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도덕적위선은 착취계급의 본색이며 도덕적부패는 부르죠아사회의 필연적산물입니다.

가장 고결한 인간적풍모의 소유자는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참다운 인간관계, 인간도덕의 기초이며 자기자신보다 남을 위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은 인간의 고상한 도덕의리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사랑하며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기때문에 사리와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입니다. 숭고한 인간애를 지니고 동지들과 인민들을 끝없이 사랑하며 혁명적량심과 고상한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혁명

가들입니다. 인민을 사랑할줄 모르고 인민의 리익을 외면하며 량심과 의리가 없고 인정미도 없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로도, 혁명가로도 될수 없습니다.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어길수 없는 혁명적의리입니다. 혁명의 선배와 후배사이의 관계는 혁명을 먼저 하고 후에 하는 차이가 있지만 혁명의 한길에서 싸워나가는 혁명가들사이의 동지적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주로 육체적생명을 주고받는 혈육의 관계라면 혁명가들사이의 관계는 혁명의 한길에서 뜻을 같이하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혁명동지들사이의 관계입니다. 혁명가들사이의 관계는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관계로 됩니다. 혁명동지를 가장 열렬히 사랑하며 동지들사이의 혁명적의리를 지키는것을 숭고한 의무로, 영예로 여기는것이 공산주의혁명가의 도덕관이며 도덕적풍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들은 혁명동지를 배반하고 동지들과의 관계에서 량심과 의리를 저버리는것을 가장 치욕스러운 배신행위로 여기는것입니다.

혁명의 선구자들이며 혁명위업을 위하여 생을 바치고 공적을 남긴 혁명선배들을 후대들이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사이의 도덕의리에서도 더 숭고한 도덕의리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혁명선렬들은 자기개인의 리익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웠으며 고귀한 혁명업적을 쌓았습니다. 혁명투사들이 생사를 가르는 결전장이나 단두대에서 최후를 마치면서도 《미래를 사랑하라!》고 웨친것은 바로 후대들을 사랑하였기때문입니다.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혁명의 길이 열리고 혁명의 전취물이 마련되였으며 인민들의 자주적

이며 창조적인 새 생활이 꽃펴날수 있었습니다.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은 후세대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혁명적의리이며 숭고한 도덕적의무로 됩니다.

혁명선배의 최고대표자는 수령이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적의리의 최고표현입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령도자입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자기운명의 참다운 주인,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수령은 과학적인 혁명사상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며 사람들에게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그들을 혁명의 한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수령의 령도에 의하여 수천, 수만의 혁명가들이 자라나고 인민들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됩니다. 수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위업이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수령의 숭고한 사상과 탁월한 령도로 하여 위대한 혁명업적이 이룩되고 혁명적세대들의 영예와 존엄이 빛나는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은 곧 수령의 위업의 계승이며 혁명선배들의 사상과 업적의 계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의 계승입니다. 혁명선배들에 대한 존대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됩니다. 위대한 수령에게 대를 이어 충성다하는것은 혁명가들의 본분이며 최고의 혁명적의리입니다. 혁명가들은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력사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은 사회주의위업을 반대하면서 공격의 예봉을 로동계급의 수령들과 전세대 혁명가들

에게 돌리였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위업이 수령의 령도와 전세대 혁명가들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하여왔으며 사회주의의 존엄이 바로 그들의 명예와 련결되여있기때문입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수령과 혁명선배들을 모독하고 그들의 업적을 말살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변질과 붕괴에로 이끌어갔습니다. 사회주의의 변질과 붕괴과정은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하여 수령과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외곡변질시키면서부터 시작되였습니다. 사회주의는 현대수정주의자들에 의하여 자기 궤도에서 탈선되고 내부로부터 와해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주의의 력사적업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말살한 사회주의배신자들의 《개혁》, 《개편》정책에 의하여 붕괴되였습니다. 기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로동계급의 수령을 헐뜯고 혁명선배들의 성스러운 혁명투쟁과 위대한 혁명업적을 모독하였으며 사회주의를 허물고 자본주의를 복귀시켰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압력에 굴복하여 혁명을 배반한 가장 비렬한 반혁명적죄행이며 혁명적의리를 저버리고 초보적인 인간도덕마저 짓밟은 가장 비도덕적인 배신행위입니다. 혁명의 배신자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모독함으로써 사람들속에서 사상적동요와 혼란을 조성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위업을 더욱 악랄하게 비방할수 있는 구실을 주었습니다.

혁명의 배신자들은 음모적방법으로 당과 국가의 지도적지위를 차지하고 혁명선배들의 명예를 훼손시킴으로써 저들의 인기를 올리고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과 국가의 최고지위를 차지한다고 하여 지도자가 되고 인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게 되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권력이나 기만으로는 인민들

의 믿음을 얻을수 없습니다. 지도자로 되고 인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자면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갖추고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민의 복무자가 되여야 합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혁명선배들에 대한 존경은 하나로 통일되여있습니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에게 충실한 사람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한 혁명선배들을 더없이 존대하지만 인민을 멸시하고 자기를 인민의 머리우에 군림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혁명선배들을 모독하는 비렬한 행동도 서슴없이 감행합니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은 교활한 수법으로 혁명의 수령들과 전세대 혁명가들을 헐뜯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 하였지만 오히려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로서의 본색과 비인간적면모를 드러내놓았습니다. 인민들을 기만하고 혁명을 배반한 자들은 인민들의 버림을 받기마련입니다.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혁명가라면 누구나 혁명선배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혁명가로서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고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길입니다.

2

혁명선배들에 대한 도덕의리를 지키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도덕기풍입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독창적인 길을 열어온 우리 혁명은 공산주의도덕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일찍부터 숭고하고 아름다운 도덕의리의 모범을 창조하고 빛내여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적도덕의리의 전통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되였으며 그것은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

쟁을 통하여 계승발전되고 빛나게 구현되였습니다.

오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아래에서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은 더욱 높이 발양되고있습니다. 수령과 전사, 당과 인민이 일심단결되고 사람들이 친혈육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정신도덕분야에서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를 보여주는것이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이 지닌 공산주의적도덕의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끝없이 숭배하고 따르며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는데서 가장 높이 발현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반만년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였으며 위인이 지닐수 있는 모든 풍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위인중의 위인이시였습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굳게 믿으시였으며 한평생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면서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자랑찬 력사와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영예,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모든 행복이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되여있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결과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힘과 신심을 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으며 우리 인민모두는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이고 제자이며 어버이수령님의 아들딸들입니다. 우리 혁명의 1 세로부

터 오늘의 새세대들에 이르는 모든 세대들이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수령님의 손길아래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며 보람찬 삶을 누려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일찌부터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전설적영웅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위대한 수령, 위대한 어버이로 높이 받들어 모시였으며 어버이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을 최상의 영예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로 간직하여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신 후 더욱 높이 발현되고있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피눈물속에 어버이수령님과 영결하였으며 가셔질줄 모르는 비통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끝없이 추모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어버이수령님을 더욱 그리워 하고있으며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나 서거하신 이후에나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의 기둥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과 효성은 세계를 감동시키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크나큰 상실의 아픔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님을 생존시와 다름없이 잘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드팀없이 계승해나가는것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성스러운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였으며 여기에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게 꾸리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생존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시였으며 수령님의 위대한 존함과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계승하고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이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는 우리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하였으며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불굴의 혁명정신과 의지를 굳게 하여주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이 있는 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며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투철한 수령관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당과 수령을 대를 이어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 이 훌륭한 인민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투쟁한 혁명가들을 높이 존대하고있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들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사리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광복된 조국에서 인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혈전의 길에 나섰습니다. 항일혁명은 력사에 류례없는 준엄하고 시련에 찬 혁명이였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투쟁함으로써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는데 빛나는 공헌을 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사들을 우리 혁명의 제일선배로, 혁명가의 귀감으로 내세우고 존대하며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투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도록 하고있으며 항일투사들의 투쟁업적을 빛내여나가고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은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인민의 조국을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입니다.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싸움에서 미제의 무력침공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지켜냈습니다. 우리 당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이 세운 불멸의 업적을 긍지높이 자랑하고있으며 그들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주의정신으로 새세대 청년들과 인민들을 교양하고있습니다.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영웅들과 로력혁신자들, 천리마운동선구자들은 우리 혁명이 부닥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킨 긍지높은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후 재더미우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짧은 력사적기간에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운 천리마시대의 영웅들과 혁신자들, 선구자들을 자력갱생의 귀감으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각이한 년대에 빛나는 위훈을 세운 혁명렬사들과 애국렬사들, 영웅전사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끝없이 빛내여주며 그들의 위훈을 력사에 길이 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렬사들과 애국렬사들, 영웅전사들을 위하여 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을 훌륭히 건립하였으며 혁명렬사들과 애국렬사들, 영웅전사들이 나서 자라고 배우며 일한 고향과 학교, 공장과 농장, 인민군부대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그들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렬사들과 애국렬사들, 영웅전사들의 유자녀들에게도 아낌없는 사랑과 배려가 돌려지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가유자녀학원을 여러곳에 내오고 국가의 부담으로 유자녀들을 훌륭한 혁명인재로 키우고있으며 유자녀들을 당과 국가, 군대의 중요한 초소에 배치하고 그들이 일을 잘하도록 보살펴주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이렇게 하는것을 혁명선렬들앞에 지켜야 할 응당한 도덕의리로 여기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로혁명가들과 전쟁로병들, 영예군인들과 공로자들, 이름있는 지식인들과 문화인들이 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속에서, 사회적인 관심과 존경속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며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습니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들과 공로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적극 내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정치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기풍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 민족사에 이름을 남긴 력사적인물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들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원시조인 단군의 묘를 발굴하고 단군릉을 웅장하게 개건하였으며 강성대국이였던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릉과 고려의 태조 왕건의 릉도 훌륭히 개건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는 로동당시대에 와서 더욱 빛나고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은 민족적위업인 동시에 국제적위업입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진정한 국제주의자로서 나라와 민족에 관계없이 세계 모든 나라 혁명가들과 반제, 반파쑈투사들, 진보적인사들과 혁명적인민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투쟁업적을 응당하게 평가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맑스와 엥겔스, 레닌, 쓰딸린을 로동계급의

수령으로 존대하며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로동계급의 첫 수령들인 맑스와 엥겔스는 로동계급의 계급적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사회주의를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전환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았습니다. 레닌은 맑스주의를 변천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고 로동계급을 조직동원하여 사회주의 10 월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쓰딸린은 레닌의 위업을 이어 청소한 첫 사회주의국가를 세계의 강국으로 건설하고 군대와 인민을 령도하여 파시즘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였습니다. 맑스와 엥겔스, 레닌, 쓰딸린은 당대에 있어서 피압박근로대중의 지향과 요구의 대표자였으며 사회주의위업은 그들의 이름과 뗄수없이 련결되여있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로동계급의 수령들을 악랄하게 헐뜯고 수령의 령도에 대하여 《독재》니, 《인권침해》니 하면서 중상비방하는것은 바로 로동계급의 수령들이 인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민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였으며 혁명의 원쑤들과 타협하지 않고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는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였다는것을 증명할따름입니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의 수령들의 사상리론적공적에 대해서도 언제나 공정하게 평가하고 온갖 기회주의적외곡으로부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였으며 그것을 혁명의 리익과 현실적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왔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리론은 력사적환경과 매개 나라의 실정에 맞게 구현되여야 합니다. 혁명의 조건과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것만큼 기성리론을 교조주의적으로 대하면 로선과 정책을 바로 세울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서 곡절을 면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면서 그 력사적제한성을 옳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자기의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확립하였으며 그것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하여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력사적환경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 독창적인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선행리론의 력사적제한성이 극복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리론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되게 되였습니다.

기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외곡하고 헐뜯으면서 그 창시자들을 모독하였습니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거세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제국주의자들의 비위에 맞게 외곡변질시켰으며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리념자체가 잘못된것이라고 떠벌이면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정면으로 거부하여나섰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부정하고 나오는 사상이란 부르죠아사상밖의 다른 사상으로 될수 없습니다. 혁명의 배신자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부정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적복리》를 위하여 《개혁》, 《개편》을 한다고 떠들어댔지만 그들의 《리론》이 다름아닌 사회주의를 허물고 자본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반동적리론이였다는것이 현실에 의하여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인민은 로동계급의 수령들뿐아니라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모든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룩한 여러 나라 인민들의 위대한 혁명투쟁을 잊지 않고있으며 그들의 력사적공적을 높이 평가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에 공헌한 혁명

선배들의 투쟁과 업적을 모독하고 훼손시키는 온갖 반혁명적책동과 배신행위를 반대배격합니다.

기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이 로동계급의 수령들과 혁명선배들의 명예를 모독하였지만 결코 그들의 이름과 고귀한 업적을 력사에서 지워버릴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회주의가 일시 곡절을 겪고있지만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나가고있는것처럼 로동계급의 수령들과 혁명선배들의 명예와 업적은 사회주의운동의 전진과 함께 인민들의 존대속에서 영원히 빛날것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련대성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 반제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당, 국가관계에서나 친선적인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과의 관계에서 일관하게 국제주의적원칙과 혁명적의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외활동을 벌리시면서 친분관계를 맺으신 세계 여러 나라 당, 국가지도자들, 정계, 사회계, 학계, 언론계의 저명한 인사들과 벗들을 변함없이 존경하며 우리 혁명의 시련의 시기에 우리 인민을 사심없이 도와준 혁명전우들과 형제적인민들,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성원해주고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는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동지적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본성에 맞는 새로운 도덕이 형성발전될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이 지어집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사람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저절로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되는것은 아

닙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당과 수령의 옳은 령도를 받을 때에만 인민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닐수 있습니다.

인민들의 정신도덕적풍모는 수령의 풍모를 닮아가며 당의 정치를 따라 가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위대한 인민을 낳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가장 숭고한 인간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시였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사상과 덕성을 따라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입니다.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풍모는 어버이수령님과 어머니당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형성발전되였으며 오늘과 같은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되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풍모와 어머니당의 인덕정치로 하여 우리 인민은 동지를 사랑하고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며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 고상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게 되였으며 우리 사회에서 동지적단결과 협조,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관계가 꽃펴나게 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세계를 정치사상적으로, 정신도덕적으로 압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3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도덕기풍을 세우며 사람들속에서 고상한 도덕의리적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도덕도 끊임없이 발

전되고 완성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의 완성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주인인 인간자체의 완성이며 인간의 완성에서 도덕적완성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인류의 도덕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도덕은 공산주의도덕입니다. 공산주의도덕은 동지적사랑과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집단주의도덕이며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도덕입니다.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속에 남아있는 낡은 도덕의 잔재를 극복하고 공산주의도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는 과정을 통하여서만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개조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를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선행세대들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대를 이어가는 후대들의 혁명적의무이며 숭고한 도덕의리입니다.

혁명선렬들의 혁명사상과 혁명정신, 고귀한 투쟁업적과 경험, 그들의 혁명가적풍모는 대를 이어 계승하고 따라배워야 할 혁명전통의 중요한 내용을 이룹니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입니다. 사회주의위업이 대를 이어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가 아니면 세대가 바뀌면서 중도반단되는가 하는것은 혁명전통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혁명전통을 거부하는것은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을 버리고 혁명투쟁을 포기하는것이며 결국은 혁명을 좌절에로 이끄는 길입니다. 사회주의운동의 경험과 교훈은 혁명전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고 말살할 때에는 오랜 력사와 투쟁경험을 자랑하던 로동계급의 당도 변질과 파멸을 면할수 없으며 아무리 사회주의의 력사가 길고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도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을 변함없이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

성하기 위하여서는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옳게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항일혁명선렬들이 이룩한 주체의 혁명전통입니다.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의 력사적뿌리이며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입니다. 혁명선렬들이 이룩한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 이것이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길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고 주체혁명위업을 확고히 계승완성해나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혁명사상과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혁명적원칙, 로동계급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며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혁명의 한길로만 꿋꿋이 걸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언제나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따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며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항일혁명선렬들에 의하여 마련되고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발전되여온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야 하며 혁명적원칙과 혁명적의리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공산주의혁명가의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고 빛내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을 확립해나가야 합니다.

도덕은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되는 사회적행동규범인것만큼 사람들이 깨끗한 량심을 지니고 사업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고상한 도덕적풍모를 갖추어야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진실로 충

실한 혁명가로, 참다운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될수 있으며 온 사회에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을 확립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부모형제들을 사랑하고 동지들을 사랑하며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것으로부터 집단과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국가와 사회재산을 애호관리하며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데 이르기까지 사회관계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산주의적도덕규범을 잘 지켜나가도록 꾸준히 교양하고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인 새세대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준비시키는가 하는데 나라와 민족의 흥망, 사회주의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새세대들의 정신도덕적풍모를 보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전도를 알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라고 하여도 새세대들을 옳게 교양하지 않으면 그들이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날수 없고 사회주의를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는것이 력사의 교훈입니다. 청소년들은 사상정신적으로 성숙과정에 있으며 혁명투쟁의 시련도 겪어보지 못하고 고이 자랐으므로 잘 교양하지 않으면 나쁜 사상과 도덕, 생활풍조에 쉽게 물들수 있는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정신도덕적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을 소홀히 하여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모두가 다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고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아름답고 건전한 정신도덕적품성을 지닌 훌륭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자라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후대들을 잘 교양하는것은 전 세대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

입니다. 혁명의 전 세대가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값높은 유산은 정신도덕적유산입니다. 전 세대는 후대들에게 유족한 생활을 위한 물질적재부도 물려주어야 하지만 그보다도 후대들이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도록 그들에게 고귀한 정신도덕적재부를 물려주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혁명의 1 세, 2 세들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당과 수령을 어떻게 받들었으며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는 길에서 어떻게 살며 투쟁하였는가 하는것을 똑바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혁명의 1 세, 2 세들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성, 불굴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교양하는데서 청년조직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하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는것은 사로청의 기본임무입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청소년들이 혁명적인 새세대로, 앞날의 믿음직한 주인공으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옳게 교양하려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교육이 배합되여야 합니다. 각급 학교들과 사회교양기관들, 가정들에서 청소년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 모든 청소년들이 언제어디서나 건전하고 혁명적인 생활환경에서 훌륭한 교양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빠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것이 그들의 정서와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것만큼 문학예술, 출판보도물을 비롯한 대중적문화, 선전수단들을 통한 교양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도덕교양은 공산주의도덕의 본질적특성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도덕교양을 사상교양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여기고 사상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상과 도덕은 뗄수없이 련관되여있으며 사상을 떠난 도덕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도덕이 집단주의도덕, 공산주의도덕이며 부르죠아반동사상에 기초한 도덕이 극단한 개인주의도덕, 반동적부르죠아도덕입니다. 사상이 건전해야 고상한 도덕적품성을 지닐수 있으며 사상은 량심화, 도덕화되여야 진실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도덕교양을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일환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원리교양을 심화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주체의 혁명적도덕관을 튼튼히 세우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정신도덕적풍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혁명적조직생활과 혁명실천을 통하여 사람들이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을 키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집단속에서 집단생활을 통하여 사회적인간으로서의 풍모를 갖추어나가며 사회적집단생활의 가장 높은 형태가 혁명적조직생활입니다. 혁명적조직생활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뿐아니라 도덕적으로 단련하고 교양하여 공산주의적풍모를 갖추어나가게 하는 훌륭한 학교입니다. 우리 인민이 건전하고 혁명적인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모든 사람이 일정한 정치조직에 망라되여 조직생활을 하고있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적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자각적인 조직생활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움으로써 사람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며 온갖 자유주의적이고 불건전한 풍조들을 배격하고 고상한 도덕품성을

키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의 량심과 도덕의리심은 실천행동에서 표현되며 검증됩니다. 낡은 도덕관념과 비도덕적인 현상은 주로 낡은 관습에 뿌리박고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서 량심과 의리를 지키며 낡은 도덕관념과 인습을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과 생활기풍을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도덕교양은 긍정감화교양방법으로, 사회적운동으로 벌리는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덕교양을 긍정감화교양방법으로, 사회적운동으로 벌리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위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는 혁명동지를 위하여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치며 누가 보건말건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찾아하며 한생을 충신과 효자의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끗한 량심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체현자들이며 우리 시대 인간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인민들속에서 발양되는 공산주의적미풍을 적극 내세우고 널리 소개선전하며 그 모범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전사회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공산주의도덕과 배치되는 낡고 반동적인 도덕과 생활풍조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그러한것이 우리 내부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공산주의도덕을 확립하는 사업은 낡고 반동적인 도덕과 온갖 패륜패덕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진행됩니다. 부르죠아도덕은 사람들을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로 부추기며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초보적인 량심과 의리마저 저버리는 황금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부르죠아도덕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고 부패타락한 생활풍조가 범람하며 그것은 반동적통

치배들에 의하여 더욱 조장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국내에서뿐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썩어빠진 부르죠아도덕과 생활양식을 대대적으로 퍼뜨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그것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공산주의도덕을 모독한 기회주의자들의 배신행위의 반동성과 해독성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비방하고 공산주의도덕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책동하면 할수록 공산주의혁명가들의 혁명적기상과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기풍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력사는 혁명적동지애와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놓아지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의 길을 열어온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우리 혁명의 자랑찬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입니다.